

2019학년도 제 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재

권외숙

박종성

개최일시	2019년 4월 10일 오전 8시30분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강영숙, 김영선, 김주영, 김택동, 김화경, 박소진, 박종성, 이정규, 황지수	기록자(간사)	권외숙	기록일	2019. 4. 10
		불참의원	김명림, 신석하, 이재진		
		기타참석자	권외숙, 차용진, 재무회계팀장(김경옥)		

안건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	-----------------

배포자료 및 기타	1.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요약 요약본 2. 2018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3. 2018학년도 교비회계 재무제표
-----------	---

■ 심의(자문) 사항

1. 의장은 총 의원 12명 중 7명이상이 참석하여 2019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2. 의장은 지난 1차 회의에 불참했던 김택동의원과 강영숙의원에게 1차 회의내용을 설명하다.
3. 의장은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무회계팀 김경옥 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4.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다.
 - ① 강영숙 의원은 기탁자가 본인이 졸업한 학과를 위한 특정목적기금을 내더라도 이것이 많이 모이면 학교 전체 기부금 액수가 증가하는 것이니 특정목적이라도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행정팀에서 강구 하길 바란다.
 - ② 박소진 의원은 2017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 기부금수입 감소에 대해 기부금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예산절감과 고정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본부에서 발전기금 모금 시 특정목적기금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 질문하다.
 - ③ 이정규 의원은 기부금수입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 포상금과 표창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등록금 수입과 관련해서는 재학생 이탈율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개편, 학교 소속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강료 수입부문에 있어서 2017년도 보다 8억 원 정도의 감소가 있는데 인건비를 따져보았을 때 학교의 투자 대비 수익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 ④ 김택동 의원은 재정적자의 심화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선상에서, 적립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임의건축적립금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적립을 계속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예산결산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⑤ 강영숙 의원은 건축기금적립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다. 재학생 이탈율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문제에 대해 동의하다. 2022년도부터 약학대학 신입생모집으로 변경되면 학교의 등록금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약학대학 모집과 관련된 입학정원 개편에 대해 기획처에 질의하다.
 - ⑥ 의장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대학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예산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 대학 우수사례(특히 흑자를 실현한 대학)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하다. 또한, 기부금 수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기부금 수입을 33억으로 편성했는데 달성하지 못했다.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것을 요구하다. 고액 연봉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수강료 수입을 증대하겠다고 했지만 수강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투자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2019학년도 제 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아숙

김종남

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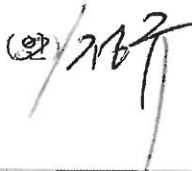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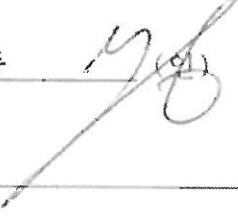


■ 심의(자문) 사항

- ⑦ 김영선 의원은 등록금 적자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타 대학 중 재정 흑자를 내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⑧ 이정규 의원은 대학도 새로운 총장이 취임할 때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자를 해결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이미 총장 임기말이다. 현재 대학발전계획을 재수립하고 세부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업무보고를 진행 중이지만 교수님들은 관심도 없다. 다음 총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총장선출제도로는 이런 폐습을 반복할 뿐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대학의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총장 선출과정을 통해 구성원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취임 후 바로 경영전략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총장선출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 ⑨ 김택동 의원이 재정흑자 타 대학(서강대, 홍익대, 세종대 etc) 벤치마킹을 해보자.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모시고와 혁신을 이루었으며, 타 대학 또한 경영능력을 보유한 총장 선출로 재정흑자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 ⑩ 등록금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학부 외국인 학생 유치도 중요하다.

의장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건을 통과 시키고 9:37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9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박종성</u> 	부의장 <u>이정규</u> 
의 원 <u>강영숙</u> 	의 원 <u>김영선</u> 
의 원 <u>김주영</u> 	의 원 <u>김택동</u> 
의 원 <u>김화경</u> 	의 원 <u>박소진</u> 
의 원 <u>황지수</u> 